

여수시, 여수공항 활성화 팔 걷었다

여객수·항공편 절반 가까이 감소
제주항공 이어 플라이강원 철수
국토부에 노선 증편 협조 요청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도 나서



올해 들어 여수공항 여객이 급감한 가운데 여수시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공항 전경.

지난달 여수공항 항공편이 축소하면서 올해 1분기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여수항 개항 100년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관광 호재를 놓치지 않도록 공항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1일~3월16일) 여수공항 이용객은 12만2314명으로, 1년 전(22만3931명)보다 45.4% 급감했다.

운항 편수도 같은 기간 1746편에서 950편으로, 45.6%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수공항은 2021~2022년 2년에 걸쳐 100만 여객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항공에 이어 플라이강원이 여수공항 취항을 철수하면서 이용객 급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수시는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중심공항

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선 증편'과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노선 증편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재 여수공항에는 김포, 제주 노선을 3편씩 운항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하반기에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를 전남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인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함께 재원을 마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에 연간 1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원액을 50% 증액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항공사에도 재정을 지원해 여수공항 항공편 축소를 미리 막자는 방침이다.

진원식 여수시 도로과 주무관은 "올 하반기에는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관광 호재를 두고 광양만권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14~21일 배출가스·소음 점검

광양시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14일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 ▲17일 오전 광영동, 오후 태인동·금호동 ▲18일 오전 봉강면, 오후 옥룡면·옥곡면 ▲19일·20일 중마동 ▲21일 다압면 순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낮12~1시는 휴식시간이다.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공영민 고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주)제이원과 수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농수산물 3000만달러 수출협약

미주 수출개척단
치맥스프로듀스·제이원과

공영민 고흥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미주 수출개척단'이 총 300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주)치맥스프로듀스와 2000만 달러, (주)제이원과 1000만 달러 등 2개사와 총 3000만 달러의 고흥농수산물 가공품 수출협약을 맺었다.

치맥스프로듀스(대표 김경남)는 2006년 설립돼 17년째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농식품을 유통하

는 업체이다. 제이원(대표 이승훈)은 1999년 풀무원(주) 임원 출신의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직접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농식품 1000여 가지를 미주시장에 전문으로 유통하고 있는 업체이다.

고흥군은 이들 업체와 협력해 유자, 감 등 고흥산 농수산물 활용한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고흥 농수산물을 미국 로컬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 농수산물 수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700가구 범씨 친환경 소득 지원

5월10일까지 신청자 모집

구례군은 올해 700가구를 대상으로 범씨 70t에 대한 친환경 방식 소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10일까지 '범씨 온탕소득기 무상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범씨 온탕 소득은 비 중자를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후 찬물에 행귀내는 친환경 소득 방식이다.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비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 병해충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군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매년 읍·면 농업인상 담소 8곳에 온탕 소득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700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70t 소득을 무상 지원한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비 보급종은 미소득 종자로 보급되고 있어 못자리 설치 전 철저한 소득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비 병해충 사전 예방 지원 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 주민이 득량면 송곡리 다전마을에서 햇차를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우 앞두고 보성 녹차농가 햇차 수확 한창

모든 곡물이 잠을 깨는 곡우(穀雨·4월20일)를 앞두고 국내 최대 차(茶) 주산지 보성에서 햇차 수확이 한창이다.

보성군은 곡우 절기 전에 수확하는 햇차 '우전차'(雨前茶)를 득량면 송곡리 다전마을 등에서 수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성에서는 755ha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다. 야생차와 유기농 차를 한 해 800여 t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16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 녹차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됐다.

계단식 밭농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11호)에도 이름을 올렸다.

보성읍과 회천면 일대에는 대규모 유기농 차밭이 조성됐다. 득량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해풍과 해발 460

m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만나 아침 내내 운무(雲霧)가 머무르는 곳이다.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많은 지리적 여건 덕분에 차나무 재배를 위한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계곡과 계곡을 잇는 가파른 등고선식 차밭은 배수와 통풍도 잘 된다.

보성 계단식 차밭은 미국 CNN이 뽑은 '세계 놀라운 풍경 31선'으로 이름을 알렸다.

보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15년 연속 국제 유기 인증(EU·USDA·JAS 등)을 지원하고 군수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농가 생산 이력을 관리하고 잔류 농약 검사를 벌이며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29일부터 5월7일까지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연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청년 예비 창업자 3개팀 선정 지원

창업 자금 2000만원씩

곡성군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예비 창업자 3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곡성군은 2023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20대 2명, 40대 1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만 15세~49세 예비 창업자의 신청을 받아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소재, 시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3개 팀을 뽑았다.

이들은 군으로부터 창업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앞으로 곡성 농산물을 활용한 피부미용 사업과 멜론을 넣은 파스타 가게, 종합 미용 전문점 등 사업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한다.

권은주 곡성군 인구정책과 지역공동체팀장은 "청년 창업 공모사업을 통해 곡성군 청년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